

바른 정보 습득과 자료 활용 극대화

현대정보기술은 최근 국가전자도서관 연결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97년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진된 2차 프로젝트는 98년 3월에 시작하여 11월에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검수 작업을 거쳐 최종 오픈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주요 응용서비스로써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이미 구축된 전자도서관 및 관련기관들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편집자>

구축 배경

국가전자도서관 프로젝트는 모든 국민이 지역, 시간의 제약없이 도서관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국내연구자들의 정보획득시간 단축으로 연구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정보화의 지역격차 해소를 비롯해 주요 전자도서관의 통합연동체제를 마련, 국내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사업 촉진, 주요 도서관별 대상분야 조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매니저인 현대정보기술의 권혁민 과장은 "이번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정보획득과 자료활용의 극대화를 비롯해 통합정보서비스에 의한 학술연구 분야의 정보관리 체계화, 정보화를 통한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정보기술은 이번 프로젝트 완료로 이용자는 시·공간 및 정보특성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 확보, 정보서비스 체계를 균형적 발전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기 구축된 전자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자도서관 모델을 재정립하여 투자효율 극대화, 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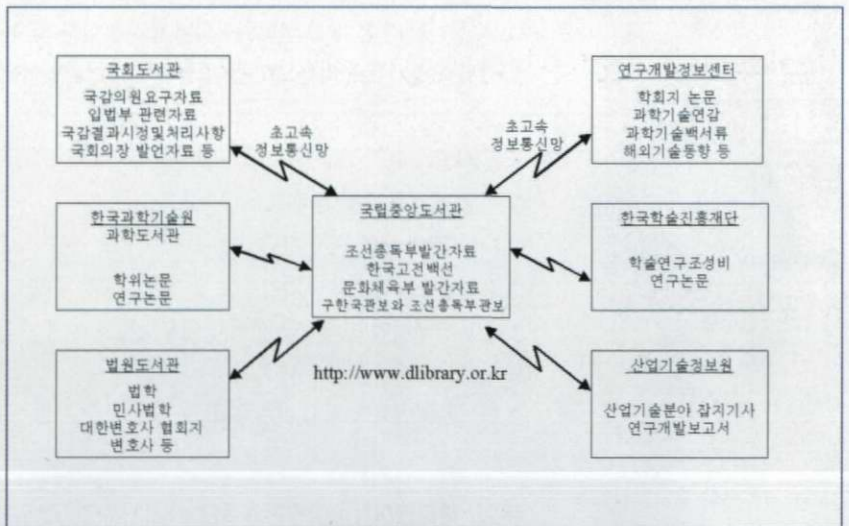
과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후 방대한 유지비용 감소로 국가예산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관 및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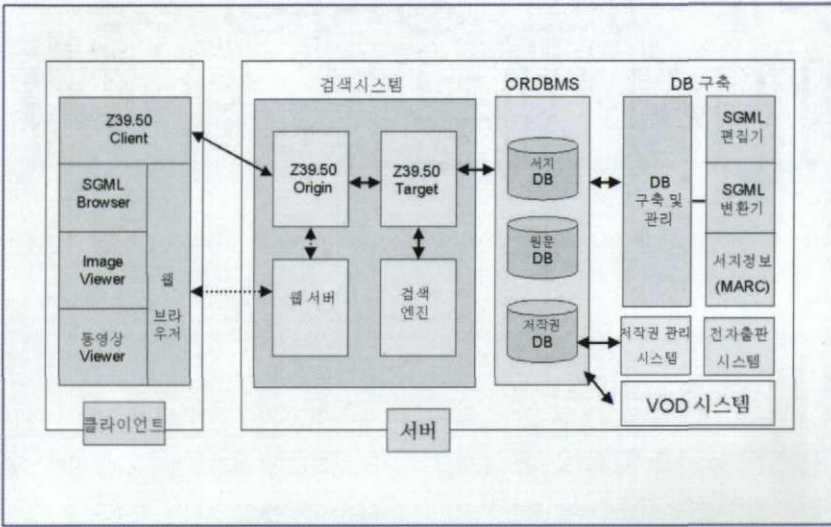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산원이 전담기관으로 사업관리를 맡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 등 6개 공동기관이 참여하였고 현대정보기술이 시스템 공급자로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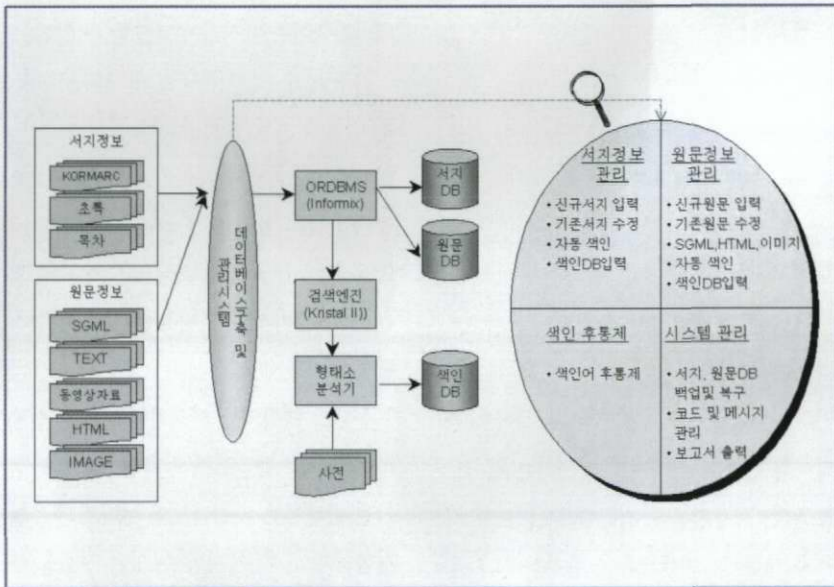
시스템 구성을 보면 전자도서관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인 국립 중앙도서관의 라우터를 중심으로 각 공동참여기관의 라우터가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었다. 이용기관 전자도서관의 시스템은 선 엔터프라이즈 4000에 탑재되어 참여기관의 내부망에 연결되었고, 서비스되는 데이터는 대용량이므로 이러한 데이터의 저장을



(그림 1) 국가전자도서관 서비스 내역도



〔그림 2〕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데이터베이스 구축 흐름도

위하여 RAID를 설치하였다.

7개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며 자체적으로 구축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웹상에서 서비스된다. 아울러 구축된 7개 기관의 통합 검색 서비스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목록, 초록, 원문정보를 동시에 질의 할 수 있으며 통합검색의 속도의 향상을 위하여 검색시 전자도서관

전용선을 이용하므로 이용자에게 빠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SGML 구현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SGML로 구현됐다는 것이다. 권과장은 "국제적인 사례를 살펴봐도 SGML로 개발해 대 국민 서비스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본문까지 검색 가능하게

하는 SGML 구현은 처음 있는 일로 기술 채택 자체가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전산원은 시범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장려사항'이라는 항목을 붙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반증해 주었다. 한국전산원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정보기술의 경우 개선사항이 적게 지적됨은 물론 장려사항까지 붙여지는 등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라고 밝혔다.

한국전산원의 장려사항의 내용은 여러 기관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는 점과 SGML Z39.50 표준 프로토콜이 처음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대정보기술은 "이번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현대그룹 내에서도 뛰어난 인력으로 구성돼 주어진 아이디어를 짧은 기간 안에 소화해 내는 능력들이 있었고, 프로젝트 성취감도 높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국가전자도서관의 3차 프로젝트는 운영단계로 일반인의 접근을 위한 기존 시스템을 확장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대규모 멀티미디어 데이터 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소재안내서비스(GILS), 전자박물관, 전자미술관들과의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며 지능형 정보검색 에이전트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